

4부 난모, 털토시, 가죽신

머리에서 손과 발로 이어지는 패션



혹한의 계절 난모는 머리를, 토시는 손을, 가죽신은 발을 따뜻하게 감싸며 기능과 장식을 동시에 품었다. 작지만 결정적인 이 소품들은 차림의 완성을 이루는 마지막 손길이였다.



함녕전에서 나오는 고종황제
1918년
서울대학교박물관 자료 제공

1918년 1월 15일 사진으로
고종은 익선관 아래에 남바위를
착용하였다.



종묘 참배의식을 거행하고
뒤이어 영녕전 참배를 행하는
영친왕
1918년
서울대학교박물관 자료 제공

1918년 1월 16일 사진으로
영친왕은 면류관 아래, 그 뒤를
따라오는 신하는 양관 아래에
남바위를 착용하였다.

육궁에 참배하러 가는 영친왕
1918년
서울대학교박물관 자료 제공

영친왕은 익선관 아래, 그 뒤를
따라오는 신하는 사모 아래에
남바위를 착용하였다.



41. 휘항 揮項

Winter Fur Hood

1800년대

길이 62.5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휘항은 정수리 부분이 뚫리고
이마와 귀 등을 덮을 정도의
큰 방한모로 앞에 끈을 달아
고정했다. 검은색 공단에 안쪽은
토끼털을 대었다.



휘항 揮項

Winter Fur Hood

19세기

길이 51.5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담인복식미술관 소장

겉감은 남색 화문단에 안감은
털을 대어 만든 휘항이다.



행려풍속도 8폭 병풍(모사)

국립민속박물관 자료 제공

(원소장처: 프랑스 국립기메동양박물관)

선비가 세속을 유람하면서
마주치는 다양한 장면을 소재로
구성한 단원 김홍도(檀園 金弘道,
1745~?)의 행려풍속도 8폭 중
설중행사雪中行事에서 휘항을 쓴
남자의 모습이 확인된다.

휘항을 쓴 남자

1840년

David Rumsey Historical Map
Collection 자료 제공

폰 지볼트(Philipp Franz Balthasar von
Siebold, 1796~1866)가 만난 강진 상인
허사첨으로 휘항을 쓰고 있다.



42. 풍차 風遮

Men's Winter Cap

20세기 초

길이 43.5 너비 27.5

전명애⁽⁵⁰⁾ 기증

조선 말기 정3품을 지낸 조재혁(1881~1951)이 착용한 풍차로 기증자의 시조부 유품이다. 남바위와 비슷하지만 볼기가 한 감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겉은 검은색 견으로 안은 검은색 용으로 만들고, 볼기와 가장자리에 검은 담비털을 둘렀다. 볼기 겉감에는 끈을 달아 턱 밑이나 뒤로 걸쳐 묶기 편하게 하였다.



43. 풍차 風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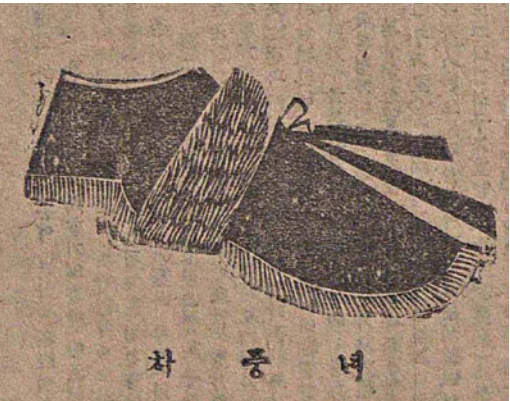
Women's Winter Cap

1940년대

길이 44 너비 26

김희경 기증

기증자의 어머니 문옥희(1920~1998)가 1948년부터 착용한 풍차이다. 겉감은 검정색 모본단, 안감은 청색 명주를 대고 속에 광목심을 넣었다. 가장자리는 담비털로 흑모선(黑毛緋)을 둘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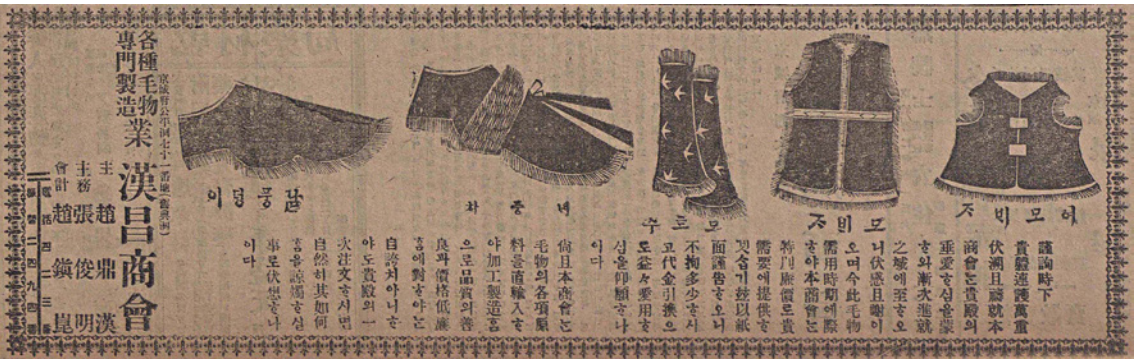
모물점(毛物店) 광고

1917년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제공

『매일신보(每日申報)』 1917년 10월 23일 기사의 방한복

광고 품목 5점 중 여성용 풍차와 토수, 배자, 남풍뎡이가 나온다.



44. 남바위 南所爲

Men's Winter Cap

19세기 말~20세기 초

길이 48 너비 26

윤혜숙⁽⁵⁰⁾ 기증

기증자의 증조부인 독립운동가

윤상옥(1866~1930)이 착용했던

남바위이다. 검은색 명주를

겉으로 하고 가장자리에 담비털로

흑모선黑毛緋을 둘렀다.



플랫폼의 남바위 쓴 남자

1917~1919년

미국 듀크대학교 도서관 자료 제공

미국 선교사 시드니 갬블(Sidney D.

Gamble, 1890~1968)의 촬영 사진으로

열차를 기다리는 남자는 양태가

좁은 흑립 아래 남바위를 썼다.



남바위를 쓰고 있는 노인

1910년

국립민속박물관 자료 제공

미국 탐험가 로이 채프먼 앤드루스(Roy Chapman

Andrews, 1884~1960)가 함경북도 북경지대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노인은 검은 두루마기에

장죽을 들고 머리에 남바위를 쓰고 갓을 썼다.



남바위를 쓰고 있는 노인

20세기 초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도서관 자료 제공

갓 아래에 남바위를 쓰고 있다.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엘리자베스 키스의 판화로 보는 남바위 착용 모습



여인과 두 아이가 남바위, 볼끼 등을 착용하고
정월 초하루 나들이를 가는 모습을 그렸다.



종묘 제례 관리 모습으로 제관 밑에 남바위를
착용하였다.



두 명의 한국 아이들 중 좌측 여자아이는 남바위,
우측 남자아이는 굴레를 착용하고 있다.



보건保健 포스터로 여인과 아이 모두
볼끼가 붙은 남바위를 쓰고 있다.

남바위 南所爲

Women's Winter Cap

19세기 말~20세기 초

길이 32.5 너비 37.5

오륜대 한국순교자박물관 소장

순정효황후(1894~1966)가 사용했던

남바위이다. 길감은 남색 대화단이며 붉은

색 볼끼가 붙어 있다. 모부帽部는 담비털,

볼끼는 토끼털을 달았고 길상문·꽃·새

등이 금박으로 장식되어 있다.



45. 남바위 南所爲

Women's Winter Cap

19세기 말~20세기 초

길이 43 너비 24

성기희⁽²⁸⁾ 기증

질은 남색 모본단模本緞을 겹으로 하고

가장자리에 담비털 흑모선黑毛絨을 둘렀고,

볼끼는 자주색 화문단으로 하여 토끼털

백모선白毛絨을 둘렀다.



46. 아얌 額掩

Women's Fur Cap

19세기 말~20세기 초

모부 길이 14 너비 28

드림 길이 89 너비 18

경운박물관 소장

겨울철 방한모 중 하나로 모부는 검정 단으로 만들고 안감은 붉은 모직, 아래 단에는 검정색의 담비털과 같은 모피를 둘렀으며, 뒤에는 검정색 궁초宮緞로 만든 쌍용원문雙龍圓紋 아얌드림을 길게 달아 늘였다. 이마 부분을 장식한 철봉술과 뒤의 오봉술은 끈목으로 연결되어 있다. 개화기 젊은 부녀자들의 외출시에 많이 착용되었다.



47. 아얌 額掩

Women's Fur Cap

19세기 말~20세기 초

모부 길이 11 너비 28.5

드림 길이 128 너비 18.5

김원옥⁽⁶⁰⁾ 기증

아얌 모부는 검정 단으로 만들고 안감은 붉은 모직, 아래 단에는 검정색의 담비털과 같은 모피를 둘렀으며, 아얌드림에는 수자쌍용원문壽字雙龍圓紋이 있다. 이마 부분을 장식한 철봉술과 뒤의 오봉술은 끈목으로 연결되어 있다. 아얌은 드림을 탈부착해서 착용하기도 하였다.



기산 김준근의 풍속화
‘한량이 기생 데리고 놀러 가고’
1880~1900년대
독일 로텐바움 세계문화예술박물관 소장

맨 좌측 여인은 드림이 없는 아얌을
쓰고 있고, 중간 여인은 풍차를 쓰고
있다. 맨 우측 남성은 청색 중치막을
입고 풍차에 갓을 썼는데 불끼를 뒤로
돌려 뒤통수에 묶었다.

국립민속박물관, 『기산 풍속화에서 민속을
찾다』, 2020, 161쪽 수록



아얌을 쓰고 있는 여인
20세기 초
국립민속박물관 자료 제공

아얌을 쓰고 갓두루마기를 입고
긴 팔 털토시를 한 모습이다.



기산 김준근의 풍속화
‘년날니모양’ (모자)
국립민속박물관 자료 제공
(원소장처: 프랑스 국립기메동양박물관)

연 날리는 맨 우측의 여인이
드림을 길게 늘어뜨린 아얌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48. 아얌 額掩
Women's Fur Cap
19세기 말~20세기 초
길이 12 너비 26
경운박물관 소장

아얌 모부는 검정 단으로
만들고 안감은 붉은 모직, 아래
단에는 검정색의 담비털과
같은 모피를 둘렀다.
이마 부분을 장식한 철봉술과
뒤의 오봉술은 끈목으로
연결되어 있다. 드림 없이
착용하기도 하였다.

49. 풍덩이 風遮 재현품

Winter Cap for Children

길이 43 너비 33

경운박물관 소장

풍차와 유사한 어린이 방한용 모자다.
풍차와 달리 정수리가 덮여 있는
방한모이다. 자주색 모본단에 양털로
테모를 둘렀다. 정수리에는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모란을 수놓고 가는 끈과 실술로
장식하였다. 뒤에는 작은 꽃무늬를 수놓은
드림이 늘어져 있다. 양옆에는 끈을 달아
턱 아래로 모아 묶거나 뒤로 젖혀 볼기와
같이 묶어서 착용하였다.



모물점毛物店 광고

1923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자료 제공

『동아일보』 1923년 12월 4일

기사로 모물점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난모가 등장하는데,

풍덩이를 ‘풍동이’라는 이름으로

여성과 아동용으로 구분하여

광고하고 있다.

모물점毛物店 廣告

地方代金引換 京城府公平洞六九番地 海龍商會 主李基煥

入製造都散賣

풍동이 一圓五十錢부터 四圓外지
로수 二圓五十錢부터 八圓外지
배자 五圓五十錢부터 廿二圓外지
녀풍차 七圓五十錢부터 十圓外지
녀풍동이 四圓부터 六圓外지
아풍동이 一圓五十錢부터 三圓七錢外지

각종모물점의미출

모물점毛物店 광고

1928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자료 제공

『동아일보』 1928년 11월 27일

기사로 모물점에서 제조하는

배자, 토수, 풍차, 풍덩이(풍덩이)

등 다양한 난모와 털옷의 판매를

광고하고 있다.

각종모물제조도산매

이팅풍, 처풍, 토수, 배자

자양단의양피내남배 十件 九十五圓
동 八十五圓
인조모본단의양피 六十五圓
내동의양피내동 五十五圓
인단의양피내동 五十五圓
모본단상선남토수 一百五十圓
동 一百五十圓
인조모본단의수우 五十五圓
피선남토수 五十五圓
동 백면피선 三十五圓
인단의 三十五圓
특상녀풍차비단안 七十五圓
상녀풍차한라안 六十五圓
보통녀풍차한라안 六十五圓
특상진중별풍 四十五圓
상진중별풍 三十五圓
특별대풍 三十五圓
보통대풍 三十五圓
차풍별대풍 三十五圓
보통대풍 三十五圓
단디방에는대금인환이음고창구보
실때에풍명과강슬자세히적어서보
내시옵소외

京城府公平洞七十一番地 毛物商 庸德商店 主李東奎



털토시 吐手

Wristlets

19세기 말~20세기 초

길이 25

오륜대 한국순교자박물관 소장

순정효황후(1894~1966)가 사용했던

털토시이다. 털토시는 남녀 공용으로 추위를 막기 위해 팔목에 끼는 물건이다. 이 토시는 남색 문단에 토끼털을 달았다.

50. 털토시 吐手

Wristlets

19세기 말~20세기 초

길이 34

김추봉⁽⁴⁾ 기증

남색 매화문단에 토끼털을 안으로 넣은 겨울용 토시로 팔목에 끼워서 추위를 막는다.

51. 털토시 吐手

Wristlets

1940년대

길이 26

강경희⁽⁴⁹⁾ 기증

기증자의 외할머니 이해경(1893~1954)이 처녀 시절부터 쓰던 털토시로 분홍색 문단에 토끼털을 안으로 넣었다.

통영 송촌 송병문(?~1945)의

부인 김귀

20세기 초

송유숙 자료 제공



52. 털토시 吐手 재현품

Wristlets

길이 54.5

경운박물관 소장

통영 송촌 송병문(?~1945)의 부인 김귀가 착용한 긴팔 털토시를 재현한 것이다. 이 토시는 자주색 모본단에 2종류의 테모를 둘렀다. 손목 쪽에는 토끼털, 겨드랑이 쪽에는 양털을 댄 것이 특징이다.





기산 김준근 조선풍속도 (스왈론 수집본)
1890년대
충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자료 제공

‘갯바치’라고도 불렸던 가죽 장인들이 갯신(가죽신)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다.

여성용 녹피혜로 유백색의 부드러운 사슴 가죽으로 만들었고, 중년 여성들이 주로 착용했다.



53. 녹피혜 鹿皮鞋
Deerskin Shoes for Women
19세기 말
길이 26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소장



가죽버선 革襪
Leather Socks
20세기
길이 29 너비 8 높이 21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제주 지역 목자(牧者)들이 방목(放牧)한 목축을 돌볼 때 신었던 목이 긴 버선 꼴의 가죽신이다. 이 가죽버선은 두 조각의 가죽을 꿰매어 발 부분을 만들고, 가죽 한 장을 발목 부분에 덧대어 완성하였다. 신고 벗기 편하게 앞부분에 트임을 주었고 발뒤꿈치에 작은 조각을 덧대어 장식하였다.



가죽신은 가죽을 가늘게 오려 짚신 형태로 만든 신으로 얇게 자른 가죽을 짚신처럼 삼은 것은 ‘갯실신’이라고 불렀다. 가죽버선 위에 덧신었다.

가죽신 革鞋
Leather Shoes
19세기
길이 28 너비 7.5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54. 태사혜 太史鞋

Leather Shoes for Children

19세기 말

길이 13.5 너비 4.5 높이 5.5

경운박물관 소장

태사혜는 조선시대 사대부 양반계층의 남자들이 평상복에 신던 굽이 낮은 마른신의 하나이다. 이 어린이용 태사혜는 연두색 비단을 감싼 가죽신으로 밑 둘레는 밀랍을 칠한 굽은 실로 꿰맸다. 앞코와 뒤축에 가죽으로 태사문(太史紋)을 장식하였다.

55. 혜 鞋

Leather Shoes for Women

19세기 말~20세기 초

길이 25 너비 6.5

경운박물관 소장

혜鞋는 신발 목이 없고 앞을 낮게 만든 신이다. 이 여성용 외코신은 앞코와 뒤축에 별도의 장식이 없으며 신울에는 무늬가 있는 남색 비단을 감쌌고, 안쪽은 소색의 가죽을 사용했다. 신의 입구 도리(兜里)는 소색 가죽으로 신울의 위쪽 가장자리에 돌려 박은 후 신 안쪽으로 넘겨 일정 간격으로 감침질하였다.

56. 운혜 雲鞋

Leather Shoes for Women

20세기 초

길이 23.5 너비 5.5

조연자⁽⁵⁰⁾ 기증

운혜는 신코와 뒤축에 구름무늬를 장식한 신이다. 이 운혜는 기증자의 어머니가 혼례 때 신였으며 분홍색 비단과 가죽으로 만들어졌다. 동일혁점(東一革店)이라는 상호가 있으며 신창 앞쪽에 8개, 뒤쪽에 9개의 징이 박혀 있다.



57. 흑혜 黑鞋

Black Leather Shoes for Women

19세기 말~20세기 초

길이 24 너비 6.5

설갑원 기증

기증자의 시할머니인 파평윤씨 윤승효(尹承孝, 1885~1972)의 검은색 신이다. 검은색 가죽으로 신울을 하고, 입구, 내피, 근피(跟皮), 안창은 모두 흰색 가죽으로 만든 신이다. 보통 여성의 흑혜는 외코신 형태인데, 신코의 형태가 남성 신으로 보이지만 여성도 신었던 흑혜이다.



58. 당혜 唐鞋

Leather Shoes for Women

20세기

길이 25 높이 6.5

이정우⁽⁶³⁾ 기증

당혜는 당초 무늬를 장식한 신발이다. 이 당혜의 신울은 소색 화문단(花紋緞)을 감쌌고, 안쪽은 소색의 가죽을 사용했다. 신코와 뒤축에 남색단으로 당초문 장식을 하였다. 밑바닥은 가죽을 여러 겹 대고 징을 박았다. 한복디자이너 이영희(1936~2018)가 수집하였다.



59. 유혜 油鞋

Rain Shoes for Men

19세기 말~20세기 초

길이 26 너비 9 높이 8.8

박경숙⁽⁶⁵⁾ 기증

기증자의 시할아버지 채홍래(1895~1934)가 생전에 착용했던 유혜이다. 유혜는 가죽에 기름을 먹여 물이 새지 않게 만든 신으로 밑창에 쇠로 징을 박아 '징신' 이라고도 한다.



5부 모피의 확장

의복의 경계를 넘어선 품격과 온기



모피와 가죽은 방한이라는 실용적 목적은 그대로지만, 활용하는 방식이 점차 다채로워졌다. 옷에서 시작되어 장신구와 생활용품의 장식 요소로 경계를 확장했다. 일제강점기 망토부터 근현대 남성의 모자와 가방, 여성들의 핸드백과 코트, 한복디자이너의 갓옷 응용 작품까지 모피는 확장되어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60. 망토 外套

Cape

1900년대 초

등길이 114

이인숙⁽⁵⁵⁾ 기증

기증자 할아버지의 망토이다.
망토 착용자인 이용석(1888~1939)은
육영사업과 기독교 전파에 힘썼고
독립운동도 지원하였다. 망토의
칼라Collar는 토끼털이며 남성과
여성을 가리지 않고 모두 망토를
착용하였다.



조선사 연구 동인회 기념사진

1925년

국립민속박물관 자료 제공

여성이 유물과 동일한 망토를
입고 있다.

61. 가죽 옷

Leather Jacket

조선 후기

등길이 93 폭 57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겨울철에 입은 조끼 형태의 옷으로,
뒷길 안쪽 면은 양털, 앞길 좌우
안쪽 면은 개털을 달아 추위를 막고
보온성을 높였다.





62.

코트

Coat

20세기

등길이 122 화장 81 품 44

이정우⁽⁶³⁾ 기증

한복디자이너 이영희(1936~2018)는 모피를 다양한 형태로 디자인에 응용하였다. 이영희가 응용 디자인한 이 코트는 갓두루마기의 어깨를 사선으로 봉제하고 허리선에 주름을 잡아 A-라인 형태로 실용화하였다. 목둘레와 앞트임선, 소매 쪽에 밍크 털로 장식하였고, 뒷면에도 덧저고리 형식으로 밍크 털을 달았다. 제13대 노태우 대통령의 영부인 김옥숙(1935년생) 여사가 착용하였다.



63.

털배자 褸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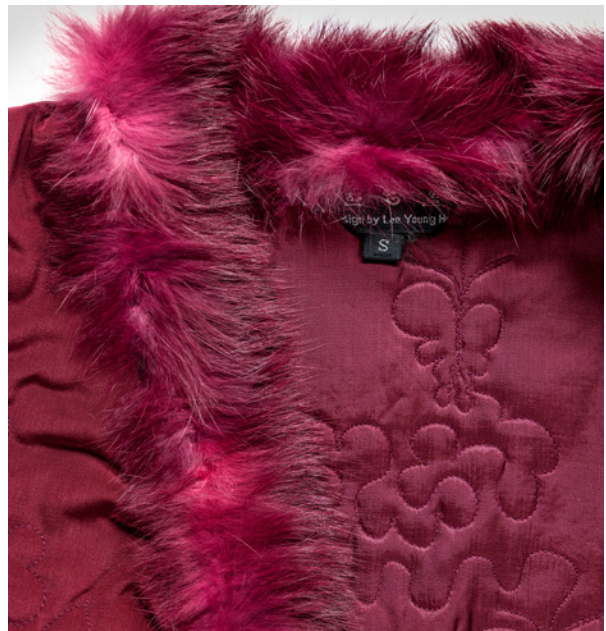
Fur-lined Vest for Girl

20세기

등길이 29 품 38

이정우⁽⁶³⁾ 기증

겉과 안을 같이 누볐으며 속에 얇은 솜을 넣은 여아^(5세) 털배자로 옆선과 깃 및 섹션에는 토끼털로 테모를 둘렀다.





모피 술을 두른 의친왕비

1938년

이동규 자료 제공

성락원에서 촬영된 의친왕 2녀

이해원과 이승규의 결혼식에

참석한 의친왕비(1880~1964)가

모피 술을 두르고 있는

모습이다.

64.

술

Shawl

1950년대

길이 150 너비 19

백인향⁽⁵⁶⁾ 기증

기증자의 어머니 김갑순^(1914~2006)이

생전에 착용한 서피^{鼠皮} 술이다.



적동의 시대, 여인들을
따뜻하게 감싸 준 여우 목도리

“겨울이 왔다. 도회의 녀성이 털보가 되는 때다. 여호털,
개털, 쇠털, 털이면 조타고 목에다 두르고 길로 나온다.
구렁이도 털이 있다면 구렁이가죽도 목에다 둘렀슬가.”

-『조선일보』街頭風景「털시대」1932. 11. 24.



“여우털이 아니면 목에 걸치지
않는 그 여우 같은 마음.”

-『조선일보』「狐鬼의 출몰-
만추풍경5」1933. 10. 25.



여호목도리 製造服賣, 여호生皮를 기름
빼고 목도리 장식하여...

-『동아일보』1936. 1. 1.



65. 술

Shawl

1958~1960년

길이 148 너비 27

박선희⁽⁴³⁾ 기증

기증자의 시어머니 박홍득^(22회, 1915~2015)이
생전에 착용한 서피^{鼠皮} 술이다.
영국대사였던 남편 김유탉^(1911~1975)과 함께
전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1926~2022)를
알현할 때 이 술을 착용했다.



66. 술

Shawl

20세기

길이 140 너비 28

이영희⁽⁶⁰⁾ 기증

기증자의 어머니 이영자^(1925~2010)가
착용한 서피^{鼠皮} 술이다. 술 안감의 흰
부분은 서피의 배쪽 무늬로 추정한다.



모피 술을 두른 여인들

1971년

이영희⁽⁶⁰⁾ 자료 제공

서울대 졸업식 사진으로
기증자의 시외숙모와 시모가
모피 술을 두르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김활란(金活蘭, 1899~1970)
1900~1930년
미국 연합감리교회
아카이브^(GCAH) 자료 제공

김활란이 여우 목도리를
두르고 있다.



나혜석(1896~1948), 김부부金夫婦
1921년
수원시립미술관 자료 제공

67. 여우 목도리
Fox Scarf
20세기
길이 101
한신자⁽⁴²⁾ 기증



68. 여우 목도리
Fox Scarf
20세기
길이 131 너비 18
장경수⁽⁵¹⁾ 기증

기증자의 어머니
이순경^(27회, 1920~2022)이
사용하던 여우 목도리이다.



69. 핸드백

Handbag
20세기
너비 34 높이 17
이혜원⁽⁶²⁾ 기증

기증자의 어머니 김애란^(1932~2020)이
사용했던 핸드백으로 송치^(송아지 털)로
제작되었다.



핸드백

Handbag
20세기
김희경 · 김혜진⁽⁶¹⁾ · 변진 ·
전명애⁽⁵⁰⁾ 기증

기증자들의 어머니가
사용했던 핸드백으로
악어 · 뱀 · 송치^(송아지 털)
등으로 제작되었다.



70. 방한모 防寒帽

Winter Cap
1960년대
너비 25 높이 19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겨울에 쓰는 방한용 모자로, 털로 만들어
보온성을 높이고 안감을 누빔 처리하여
더욱 따뜻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71. 중절모 中折帽

Fedora
1960년대
가로 30 세로 26.6 높이 16
설영자⁽⁵⁹⁾ 기증

기증자의 아버지인 대한전선그룹
창업주 설경동^(1901~1974)이 착용하던
중절모로 물개 털로 제작되었다.



72. 실크햇과 보관함

Silk Hat and Silk Hat Box
1960~70년대
가로 34 세로 27 높이 17.5
서진강⁽³⁶⁾ 기증

기증자의 남편 정일영^(1926~2015)이 1960~70년대 주 프랑스
대사와 주 스위스 대사 시절 사용했던 실크햇Silk Hat과 가죽으로
제작된 실크햇 보관함이다.



73. 가죽함 皮函

Leather Trunk
1900년대 초
가로 75 세로 47 높이 31.5
민은식⁽⁴⁹⁾ 기증

기증자의 어머니^(1900~?)가 17세에 혼례할 때 받았던 가죽함으로 나무틀에 가죽을 씌웠으며 전면에 봉황과 모란, 옆면에 수자문 壽字紋과 박쥐 문양이 그려져 있다.



74. 갑주함 甲冑函

Storing Box for Armor and Helmet
1880~1890년대 추정
가로 42 세로 69 높이 16
박선희⁽⁴³⁾ 기증

통가죽에 주철 마감한 갑옷과 투구 보관함이다.



75. 여행용 가방

Suitcase
1930년대
가로 77 세로 44.8 높이 22.5
천유경⁽⁵⁷⁾ 기증

기증자의 증조부 천상하가 사용했던 가죽으로 만들어진 여행용 가방이다.





논고

전통 갓옷에 사용된 모피와 제작 기법:
경운박물관 전시 유물을 중심으로

안인실 · 이민정

연우 전통침선연구소, 난모 및 털옷 숙련기술전수자

1. 서론

사계절이 뚜렷한 한반도에서는 고대부터 동물의 털과 가죽을 적극 활용해 의복을 제작해 왔고, 그 과정에서 모피·가죽 복식은 독자적 발전 양상을 보였다. 20세기 초까지도 방한(防寒)을 위해 갓옷이 일상적으로 착용되었으나,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고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서양식 목도리·모자·코트가 확산되면서 전통 갓옷은 점차 설 자리를 잃었다. 이에 따라 전통 갓옷을 만들던 모의장(毛衣匠)들도 생업을 잃고 흩어지게 되었다.

2025년 경운박물관과 국립대구박물관이 공동 기획한 〈갓옷, 겨울을 건너다〉는 현대의 세련된 모피 의복에 밀려 옷장 한켠 또는 박물관 수장고로 물러난 전통 갓옷에 다시 주목하게 하는 뜻깊은 전시다. 경운박물관이 소장한 다수의 근대 난모와 털옷 유물뿐 아니라 국내에 소장된 전통 갓옷 유물을 한데 모아, 어떤 재료가 사용되었고 어떤 제작 기법이 적용되었는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2장은 과거에 우리가 어떤 모피류를 사용했는지 사료를 통해 살펴보고, 3장에서는 경운박물관에 소장된 갓옷 유물의 모피 종류와 그 비율을 살펴보고, 모피류가 확인되지 않은 모피는 현미경 분석을 통해 감별을 시도하였다. 4장에서는 경운박물관에 소장된 중국식 마패와 한국의 갓저고리를 중심으로 한국 특유의 갓저고리 제작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사료에 기록된 갓옷용 모피류

우리나라에서 난모와 털옷이 언제부터 사용됐는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중부 이북은 한랭기후의 영향으로 겨울이 매우 춥고 연교차가 큰 데다 우리 옷의 원형이 북방유목민족과 같은 계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고 시대부터 존재했으리라 여겨진다. 온대 지방이라 하더라도 종교적, 심미적 요인에 의해 모피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갓옷 또는 털옷을 뜻하는 한자는 구‘裘’로 설문해자를 보면, 옷(衣) 안에 구(裘)가 들어있는데 이는 짐승의 털가죽을 옷에 부착한 형태로 보인다(그림 1).



그림 1.

갓옷 ‘구’의 상형문자

(설문해자)

중국 춘추시대 제나라의 관중이 지은 것으로 알려진 『관자(管子)』에는 고조선의 문피(文皮)¹를 사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三國志』 魏書 東夷傳)에서는 부여의 지배층이 국외로 나갈 때 비단옷을 차려입고 그 위에 여우[狐]나 삥[狸], 원숭이[狢], 희고 검은 담비[白黑貂] 털로 만든 갓옷을 덧입었으며, 금·은으로 모자를 장식하여 자신의 신분과 위세를 드러내었다고 전한다.²

후한서 동이열전(『後漢書』 東夷列傳)에는 개마산 동쪽에 위치해 동해와 접하고 있던 옥지(沃沮)가 고구려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담비(貂)를 조세로 바쳤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며, 동에는 바다표범가죽(文豹)이 주요 특산물이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이어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도 사슴, 여우, 담비, 호랑이, 표범, 곰 등 다양한 가죽의 거래 기록이 남아있다. 원 간섭기 고려의 공물(貢物) 기록에는 몽골 사신이 수달피 1만령(獭皮一萬領)을 요구하였다는 기사도 있다.³

『조선왕조실록』에는 모피와 관련된 진상품, 무역/외교, 선물, 사치 금제 기사가 다수 기록되어 있다. 대표적인 기사는 다음과 같다.

- 진상품

평안도

공물은 소와 말의 털(牛馬毛), 개가죽(狗皮), 표범(豹), 사슴(鹿), 노루(獐), 여우(狐), 삥(狸), 수달(水獺), 담비(貂), 청서(靑鼠), 돼지(猪) 가죽

함길도 길주목 갑산군

땅이 많이 기름지고, 기후가 몹시 춥다. 토산은 초피(貂皮), 청서피(靑鼠皮), 황모(黃毛).⁴

강원도

공물은 쇠가죽(牛皮), 말가죽(馬皮), 여우가죽(狐皮), 삥가죽(狸皮), 담비가죽(貂皮), 범가죽(虎皮), 표범가죽(豹皮), 사슴 가죽(鹿皮), 산달피(山獺皮), 수달피(水獺皮), 해달피(海獺皮), 돼지가죽(猪皮), 어피(魚皮), 노루가죽(獐皮), 곰가죽(熊皮), 표범꼬리(豹尾), 여우꼬리(狐尾), 곰털(熊毛), 돼지털(猪毛)

평안도와 함길도에서 상납하는 초서피(貂鼠皮)는 정해진 수량이 없기 때문에, 매년 상납하는 수량이 많다가 적다가 일정하지 아니하여 불편합니다. 1년 동안 나라에 쓰이는 원 숫자를 두 도에 생산되는 수의 많고 적음을 참작하여, 평안도에 초피(貂皮) 7백 벌과 서피(鼠皮) 5백 장[領], 함길도에 초피 1천 3백 65장과 서피 3천 9백 90장을 정한 수효로 하여 상의원(尙衣院)에 바치도록 하고⁵

1 무늬 있는 가죽[文皮] : 여기에서 말하는 무늬 있는 가죽은 짐승의 가죽으로 호랑이 가죽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회남자(淮南子)』 권4 추형훈(騷形訓)의 “東北方之美者, 有斥山之文皮焉.”과 이에 대한 주석(“斥讀斥邱之斥, 文皮, 虎豹之皮也. 『傳』曰：無終子使孟樂因魏 莊子, 納虎豹之皮也, 請和諸戎, 是也.”)은 한반도 일대의 특산품이 호랑이 가죽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https://db.history.go.kr/ancient/level.do?levelId=ko_001r_0090_0010)

2 『三國志』 卷30, 魏書 30, 東夷傳 夫餘條, “出國則尙繒·繡錦·罽, 大人加狐·狸·狢·白黑貂之裘, 以金銀飾帽.”

3 『高麗史』 卷22世家22高宗8年.“蒙古皇太弟鈞吉索獺皮一萬領細紬三千匹”

4 세종실록 155권, 지리지 함길도 길주목 갑산군

5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8월 27일 계사 1번째 기사 (1425년)

산달피(山獺皮) 토공지: 충청도 충주목 음성현·전의현·청산현, 충청도 공주목 홍산현·은진현·회덕현·진잠현, 충청도 홍주목 해미현·보령현, 경상도 경주부 대구군, 경상도 안동 대도호부 영덕현·봉화현, 경상도 상주목, 경상도 진주목, 전라도 전주부 금산군·익산군·금구현·여산현, 전라도 나주목 영광군·순창군, 전라도 장흥도호부, 강원도 회양 도호부 이천현, 평안도 삭주 도호부 창성군, 평안도 삭주 도호부 벽동군·운산군

수달피(山獺皮) 토공지: 충청도 청주목 연기현, 충청도 공주목 비인현·은진현, 충청도 홍주목 해미현·당진현·보령현, 경상도 경주부 밀양도호부·경산현·영산현·현풍현·영일현, 경상도 안동대도호부 하양현, 경상도 진주목 김해도호부·창원도호부·함안군·진성현·칠원현, 전라도 전주부 만경현·부안현, 전라도 나주목 영암군·영광군·남평현, 황해도 풍천군 문화현, 강원도 원주목 영월군, 평안도 평양부 상원군·삼등현·강동현, 평안도 안주목 성천도호부·자산군·순천군·개천군·덕천군·맹산현·은산현·양덕현, 평안도 의주목 용천군·정녕현, 평안도 삭주 도호부 영변대도호부·벽동군·박천군·태천군, 평안도 강계도호부 이산군·회천군·여연군

－ 무역/외교

황엄(黃嚴)이 아청채단 호의(鵲靑綵段胡衣)를 내놓으며 말하였다.

“청컨대, 초피(貂皮)로 속을 넣어 주소서.”⁶

조선시대 초피(貂皮)로 만든 옷

윤봉(尹鳳)이 내어놓은 단자(段子) 20필은 한 필의 값을 초피(貂皮) 25장[領]으로 하여 함께 5백 장을 주고 채견(綵絹) 10필은 한 필의 값을 청서피(靑鼠皮) 1백 30장으로 하여 함께 1천 3백 장을 주고, 생관견(生官絹) 20필은 한 필의 값을 호피(狐皮) 10장으로 하여 함께 2백 장을 주고, 채견(綵絹) 11필은 자색주(紫色紬) 4필과 압두록주(鴨頭綠紬) 4필과 백주(白紬) 3필, 함께 11필을 주고, 박실이 내어놓은 관견 25필은 한 필의 값을 초피 6장으로 하여 1백 50장을 주고, 소삼릉포(小三綾布) 5필은 한 필의 값을 초피 3장으로 하여 함께 15장을 주고, 생관견 18필은 한 필의 값을 청서피 1백 30장으로 하여 함께 2천 3백 40장을 주고, 소삼릉포 5필은 한 필 값을 호피(狐皮) 5장으로 하여 함께 25장을 주니, 두 사신이 이를 받고 기뻐하였다.⁷

조선시대 초피(貂皮)로 만든 옷

－ 선물

청평군 객연성이 하직하고 평안도로 가니, 임금의 입고 있던 산달피 깃옷을 벗어 내려줌⁸

조선시대 초피(貂皮)로 만든 옷

상이 양피(羊皮)로 만든 옷 한 벌을 경상 병사 박진(朴晉)에게 특별히 하사하였다.⁹

조선시대 초피(貂皮)로 만든 옷

요즘 이조 관서 송시열이 착용한 의복을 보건대 매우 얇아 추위에 고생할까 염려된다. 그래서 이 초구(貂裘)를 지었는데 내가 병 때문에 직접 줄 수가 없으니 정원이 이 옷을 전해주고 겸하여 내 뜻을 유지하여 사양하지 말게 하라¹⁰

조선시대 초피(貂皮)로 만든 옷

－ 복식금제/사치금제

신분에 따른 의복을 정하다(세종 22년, 1440)

“삼가 《예기(禮記)》를 상고하니, 옥조(玉藻)에 말하기를, ‘임금은 호백구(狐白裘)를 입어도 사(士)는 호백구를 입지 못한

다.’ 하였고, 주(註)에 이르기를, ‘여우 가운데 흰 늑은 적으므로 오직 임금만이 입을 수 있고, 사(士)나 천인(賤人)은 입지 못한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군자(君子)는 호청구(狐靑裘)를 입는다.’ 하였고, 주에 이르기를, ‘군자라 함은 대부(大夫)·사(士)를 이르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귀·천(貴賤)의 겉옷은 옛부터 차등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본국의 사대부의 의관(衣冠)은 이미 차등이 있습니다. 초피(貂皮)는 희귀한 물건이온데, 지금 초구(貂裘)와 초피이엄(貂皮耳掩)은 사람마다 모두 쓰고 입을 것은 미편하오니, 지금부터 초구와 토표구(土豹裘)는 집현전(集賢殿) 부제학(副提學) 이상이라야 쓰고 입게 하고, 3품 이하는 단지 이피(狸皮)·호피(狐皮)·서피(鼠皮)만을 허락하고, 이엄(耳掩)은 3품 이상이면 초피를 쓰고, 4품 이하이면 이피(狸皮)·호피(狐皮)·서피(鼠皮)를 쓰고, 공상(工商)·천례(賤隸)의 옷과 이엄은 단지 호피·이피와 잡색 모피(毛皮)만을 쓰게 하옵소서.

조선시대 초피(貂皮)로 만든 옷

예조에서 사치를 금하는 조목을 기록해 올리다(성종 3년, 1472)

서인(庶人) 남자와 부인이 초피(貂皮)·청서피(靑鼠皮)를 사용한 옷과 이엄(耳掩)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되, 다만 여인(女人)은 서피(鼠皮)만은 금하지 말게 하소서.”¹¹

조선시대 초피(貂皮)로 만든 옷

“입자(笠子)를 쓸 때에 이엄(耳掩)을 당하관(堂下官) 및 사족(士族)은 서피(鼠皮)·일본산 산달피[倭山獺皮]로써 만들고 제학(諸學)의 관원과 제색(諸色)의 군사·서얼(庶孽)·이서(吏胥)들은 적호피(赤狐皮)·국산 산달피[鄉山獺皮]로써 만들고, 공상(工商)·천례(賤隸)들은 산양피(山羊皮)·구피(狗皮)·묘피(貓皮)·지달피(地獺皮)·이피(狸皮)·토피(兔皮) 등으로써 만들고, 천한 여인의 모관(毛冠)·차수(遮首)도 상공인·천례의 예에 따르게 하소서.”¹²

조선시대 초피(貂皮)로 만든 옷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위의 기사를 통해 조상들이 사용했던 모피의 종류를 살펴볼 수 있다. 모피 종류의 한자어와 한국어, 학명, 그림을 <표 1>에 정리하였다. 그림은 개항기 풍속화가 김준근의 그림을 사용하였다.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에 전해진 스왈른 수집본의 동물 그림은 대부분 털을 가진 동물로 모피 사용 및 교역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초피(貂皮)로 만든 옷

표 1.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모피 동물의 종류

			
貂(초)	貂(초), 獬(돈)	水獺(수달)	(靑)鼠(청서)
담비 (노란목도리담비) Martes flavigula	검은담비 Martes zibellina (sable)	수달 Lutra lutra	청서, 灰鼠 Sciurus vulgaris mantchuricus

조선시대 초피(貂皮)로 만든 옷

조선시대 초피(貂皮)로 만든 옷

조선시대 초피(貂皮)로 만든 옷

^[1] 성종 3년(1472)에 이르러, 예조에서 사치를 금하는 조목을 기록해 올리다(성종 3년, 1472)
서인(庶人) 남자와 부인이 초피(貂皮)·청서피(靑鼠皮)를 사용한 옷과 이엄(耳掩)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되, 다만 여인(女人)은 서피(鼠皮)만은 금하지 말게 하소서.”11
조선시대 초피(貂皮)로 만든 옷

^[2] 명종실록15권, 명종 8년 9월 18일 신유 2번째 기사 (1553년)

			
地獺(지탈) 오소리 Meles leucurus	山羊(산양) 산양 Naemorhedus	狸(리) 삾 Felis bengalensis manchurica	兔(토) 토끼 Lepus coreanus
			
狐, 赤狐(호, 적호) 여우, 붉은 여우 Vulpes vulpes peculiosa	猪, 山猪(저, 산저) 돼지, 멧돼지 Sus scrofa coreanus HEUDE	虎(호) 호랑이 Panthera tigris altaica	熊(웅) 곰 Ursus thibetanus
山獺(郷山獺), 倭山獺(산달) 노란 담비, 누른 돈 Martes melampus	獐(장) 노루, Capreolus capreolus bedfordi THOMAS	鹿(녹) 사슴 Cervus nippon hortulorum	猫(묘) 고양이
狗(구) 개	豹(표) 표범	海獺(해달) 해달	

초피와 (청)서피는 평안도와 함길도에서 왕실 진상(進上)을 담당하였다. 국토의 면적의 70% 이상이 산지인 한반도에서 산달피와 수달피는 산과 강이 있는 곳에 대부분 서식하여 포획이 가능했다. 명나라 사신들은 본국에서 가져온 비단을 조선에서 값비싼 모피류로 교환하여 갔으며, 선물로 초피로 옷의 안감을 만들어 줄 것을 청하기도 하였다. 모피 옷은 왕이 내리는 선물로서도 기능하였다. 현재 우암 송시열 초구(貂裘)가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조선은 신분제가 철저한 사회로 모피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귀천에 따라 차등이 있었다. 모피류 중 가장 고급에 속하는 초피는 조선시대 관원 품계 3품 이상이어야 착용 가능하였으며, 서피는 관직이 없는 서인(庶人)은 사용할 수 없는 모피였다. 여성은 예외여서 서인이더라도 미혼의 젊은 여성에게는 서피는 허용되었다. 일본산 산달피가 수입되던 시기 당하관 및 일반 선비들은 서피, 일본산 산달피로 이엄을 제작하였으며, 하급 관원과 군사, 서얼, 이서 등은 붉은여우털, 고양이털, 오소리털, 삾털, 토끼털 등을 안감으로 대어 만들었다.

왜국(일본) 수달피와 관련하여 1626년(인조 ㄱ)에 간행된 이제신(李濟臣)의 『청강선생후청쇄어(淸江先生鯁鯢瑣語)』에는 ‘이엄’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고(近古)에는 사(士)·서인(庶人) 할 것 없이, 왜국 수달피를 사서 피견(披肩) 만들기를 좋아하는데, 피견이란 항간에서 말하는 ‘이엄(耳掩)’이라는 것이다. 다투어 가면서 빗깇이 검은 것으로써 자량을 삼아 많이 비싼 값을 주고 샀으므로 왜인들은 앉아서 이익을 얻게 되고, 우리나라 면포는 모두 왜국으로 돌아가게 되니,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었다. 조식(曹植, 1501~1572)이 병인년에 소명(召命)을 받았을 때에 이런 사실을 조정 관원들에게 극력 말하여 이로 인하여 엄중히 금지하니, 이로부터 그 폐단이 없어졌다. 다만, 그후로는 왜인들이 전혀 활 만드는 각재(角材)를 가져오지 않으면서, “수달피를 팔도록 허락하여 주면 활 만드는 각재를 가져오겠다.”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활 만들기가 역시 어려워졌다. (중략) 명종조 이전부터 사류(士類)들은 모두 왜달피(倭獺皮)로 만든 이엄(耳掩)을 착용하였다. 초피(貂皮)는 법으로 금하였고 서피(鼠皮)는 희귀하고 호피(狐皮)는 너무 따뜻하므로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 없으며, 다른 가죽을 가지고 만들어 쓰는 사람도 드물다. 내가 신유년에 처음으로 누런 족제비 가죽(黃狴皮)으로 소이엄(小耳掩)을 만드니 사람들이 모두 웃었다. 친구 김행주(金行周)가 빌려 쓰고 길에 나갔다가 의원 기생들을 만나니 길을 막고서 손가락질하며 웃고 빈정거리며 희롱하여 마치 아니하니, 탕뎡 말까지도 느려져서 거의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왜국 수달피를 금한 후로는 선비들이 누런 족제비 가죽의 이엄 쓰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¹³

이 글에는 임진왜란 이전 왜국 수달피가 조선의 면포와 교환되었던 당시 상황이 묘사되어 있다. 법으로 금지된 초피, 희귀한 서피, 과도한 보온성을 지닌 여우털(호피)을 대신할 법망을 꾀하는 새로운 모피류인 수달피가 명종조 이전부터 일본에서 수입되었고 겨울철 털모자인 이엄에 사용된 것이었다. 후에 수달피도 금지되자 누런 족제비(黃狴皮)를 안에 댄 이엄이 유행하였다.

3. 경운박물관 소장 갓옷 유물의 모피 종류

경운박물관은 약 13,000여 점의 유물을 소장한 근세 복식 전문 박물관으로, ‘남바위’·‘아얌’·‘갓저고리’ 등 모피를 댄 복식 유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특히, 갓저고리에서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토끼털·양털 안감 외에도, 여우·수달·청서·삾의 털가죽을 안감으로 사용한 갓두루마기와 갓저고리, 마고자(마괘)를 소장하고 있다.

다음 <그림 2>는 2025년 특별전 <갓옷, 겨울을 건너다>에 전시된 총 36점의 경운박물관 소장 20세기 전반기의 갓옷 유물에 사용된 모피 종류별 빈도를 조사한 것이다. 전시 유물 36점 중 남자용은 5점, 31점은 여성용이다. 남자용 갓옷 품목은 마괘, 마고자, 갓두루마기(내페), 남바위와 풍차이며, 여성용 갓옷은 갓두루마기, 갓저고리(내피 포함), 배자, 토수, 남바위, 아얌, 풍차, 솔과 여우목도리로 구성되었다. <그림 2>를 보면 토끼털과 양털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토끼털의 경우 주로 여성 복식에 사용되었고, 배자 안감(5점), 토수, 남바위에 부착된 볼끼, 갓저고리와 갓두루마기 안감으로도 사용되었다. 양털의 경우 남성 갓두루마기 안감으로 사용되었으며, 여성 갓저고리 3점과 배자 4점의 안감으로 사용되었다. 겉감 없이 털 안감의 형태로 남아있는 유물도 2점이 토끼털, 1점이 양털이다.

¹³ 淸江先生鯁鯢瑣語, https://db.itkc.or.kr/dir/item?itemId=GO#dir/node?dataId=ITKC_GO_1351A_0010_00_00010&viewSync=T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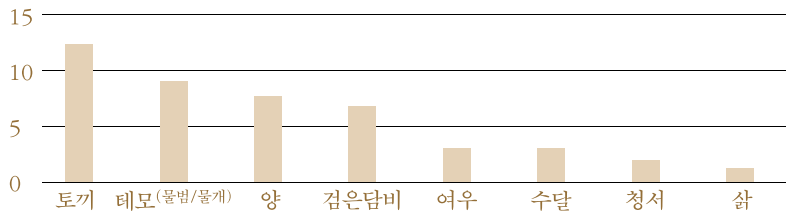


그림 2. 2025년 특별전 <갓옷, 겨울을 건너다>에 전시된
경운박물관 소장 갓옷 유물에 사용된 모피 종류별 빈도

검은담비털인 초피(貂皮) 또는 동피(獬皮)는 주로 난모류인 아얌, 풍차, 남바위에 사용되었다. 초피는 청대 황제의 동조관(多朝冠)에도 사용되었다. 긴 담비털을 깎아 모부에 사용한 방식은 아얌에 사용된 가죽 부착방식과 유사하다.



그림 3. 아얌(경운496)
(경운박물관 소장)

그림 4. 皇帝冬朝冠¹⁴
(북경 故宫博物院 소장)

전시에 나온 배자 9점 모두 테모를 두르고 있으며, 갓저고리의 경우 4점 중 2점만 테모를 둘렀다. 테모의 소재는 토끼털 2점을 제외하고, 모두 털이 뽀뽀한 물범 또는 털물개 테모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우털은 중국식 남성 마괘의 안감과 여우목도리에 사용되었다.

청서피의 경우, 여성 갓두루마기(경운 11407)와 술에 사용되었다. 청서피는 회색 다람쥐 가죽으로 불리는데 현재 중국 동북부, 신장, 허베이 등지에서 생산되고 있다. 그 중 대경안산맥과 소경안산맥 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어 동북 회색 다람쥐 가죽이라고 한다. 회색 다람쥐 털은 가늘고 유연하며 윤기가 흐르고 등은 어두운 회색, 가슴 부분은 흰색의 털이 특징이다. 가죽은 튼튼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연결하여 내피로 사용할 경우 우측의 그림과 같은 문양이 나타난다. 갓두루마기(경운 11407)의 경우 약 87장의 청서피가 사용되었다. <그림 6>은 화려한 무늬가 있는 안감털이 부착된 청대 궁중 후궁의 창의(幪衣)이다.¹⁵



그림 5.
갓두루마기(경운 11407)
(경운박물관 소장)

그림 6.
黄色缙丝水墨水仙纹上羊皮下灰鼠皮幪衣
(중국 故宫博物院 소장)

삶의 모피는 남성 마고자(경운박물관 소장)에 사용되었다. 기증자에 의하면 아버지인 이중화(1899~1981)가 생전에 착용한 털마고자이다. 마고자를 지을 당시에 침모와 갓바치가 며칠동안 집에 묶으면서 옷을 지었다고 한다. 호피와 같은 검은 반점이 있어 거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털이 거칠지 않고 폭신하다. 안감으로 사용하여 연결한 삶 가죽 한 장의 길이는 약 20cm 정도이다.



그림 7. 경운박물관 소장 삶 내피 마고자와 안감털

2025년 특별전 <갓옷, 겨울을 건너다>에 출품된 경운박물관 소장 갓옷 유물 가운데 기증자 설명으로 모피 종류를 추정할 수 있으나 확정이 어려운 사례에 대해서는, 종 판별을 위해 현미경 분석을 실시하였다. 동물성 섬유를 판별하는데 있어 광학현미경/SEM을 통한 털 단면 · 피질 · 수질(medulla) · 큐티클 패턴 관찰, 필요 시 FT-IR · 펩티드 지문(콜라겐/케라틴) 등 분석으로 종 판별을 시도하는 국제 표준 · 사례가 확립돼 있다(ISO 17751-2)¹⁶. 모피 식별의 경우,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사 오준석(2005)¹⁷과 일본 홋카이도대학교 교수 近藤敬治(コンドウ, ケイジ)(2013)¹⁸에 의해 모피 식별을 위한 주사전자현미경 사진도감이 출간되어 유물에서 털 시료를 채취하여 주사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한 사

¹⁴ 사진 출처: https://www.mam.gov.mo/gb/exhibition/2020_Stately_Demeanour_Costumes/105#gallery-1

¹⁵ 사진 출처: <https://news.qq.com/rain/a/20201222A08Z7200>

¹⁶ ISO 17751-2:2023, Textiles — Quantitative analysis of cashmere, wool, other specialty animal fibres and their blends, Part 2: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method, <https://www.iso.org/standard/83596.html>

¹⁷ 오준석, “천연섬유와 모피 식별 아틀라스.”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2005.

¹⁸ 近藤敬治, “日本産哺乳動物毛図鑑: 走査電子顕微鏡で見る毛の形態.” 北海道大学出版会, 2013.

진을 사진도감에 수록된 전자현미경 사진과 비교 대조하면 모피 종류 판별에 용이하다. 본고에서 는 경운박물관 소장 갓옷 유물에서 자연스럽게 탈락된 보호모(Straight guard hair)를 시료로 채취하여 광학현미경/SEM을 통한 큐티클 패턴 관찰 및 분석, 도감과의 비교를 통해 모피 종류를 판별하였다. 측정 도구는 TESCAN VEGA3 社의 Scaning Electron Microscope이며, 백금 코팅을 하여 1000배(1.0kx)로 촬영하였다.

가. 갓두루마기(경운6801)

회갈색 청서 털을 안감으로 낸 갓두루마기로¹⁹, 이를 확증하기 위해 SEM을 통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측정한 보호모는 26mm 정도의 길이로, SEM을 통한 큐티클 패턴을 비교 분석한 결과 近藤敬治의 Lutra lutra(Eurasian Otter) SEM 이미지와는 상이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유라시안 수달의 보호모의 두께 가장 넓은 부분의 너비가 125 μ m인 반면, 측정된 보호모의 경우 최대 너비가 70.01 μ m 정도로 얇았고, 모근 부분의 화변형(花弁形)의 형상도 수달피의 경우 균일하고 좁고 뾰족한데 반해, 화변형들이 눌러있는 형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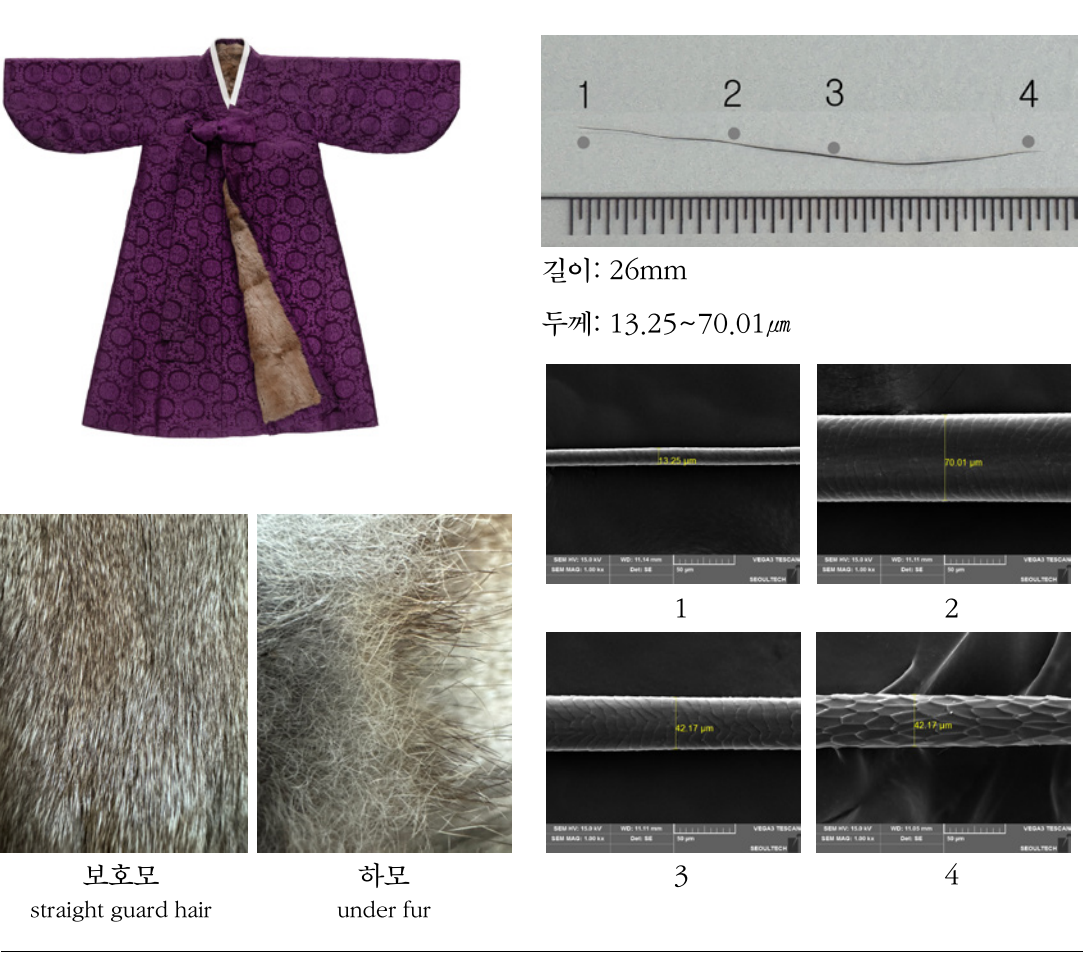


그림 8. 갓두루마기(경운6801)의 안감 모피와 SEM 측정 이미지

19 안감에 사용된 모피 조각을 세어본 결과, 경운 11407과 유사하게 약 86~87개의 조각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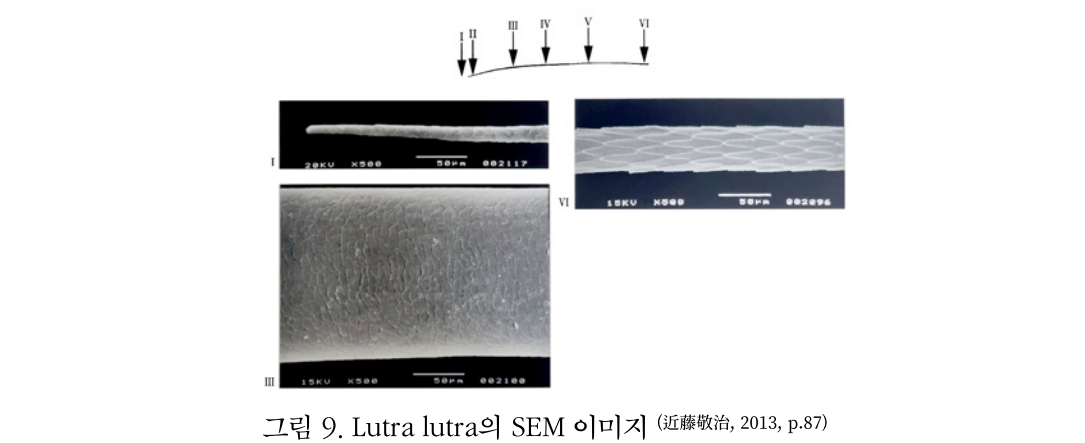


그림 9. Lutra lutra의 SEM 이미지 (近藤敬治, 2013, p.87)

나. 풍차와 아얌

풍차(경운 505)와 아얌(경운 497)에 사용된 털은 검은 담비털로 추정되었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SEM을 통한 시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풍차와 아얌의 시료를 추출한 결과 둘 다 전체적으로 짙은 검정색을 띄고 있어 검게 염색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염색하지 않은 동물의 털은 어둡더라도 부드러운 색의 변화를 보인다. 풍차는 길이 20cm 정도, 아얌에서 추출된 시료는 8mm로 남바위 털 시료에 비해 짧았다. 두께는 유사하였다. SEM 측정 결과 두 시료의 모피의 종류는 유사한 것으로 판별되었다. 아얌에서 모근쪽 현미경 사진이 추출되어 近藤敬治의 Martes zibellina의 SEM 이미지(그림 11)와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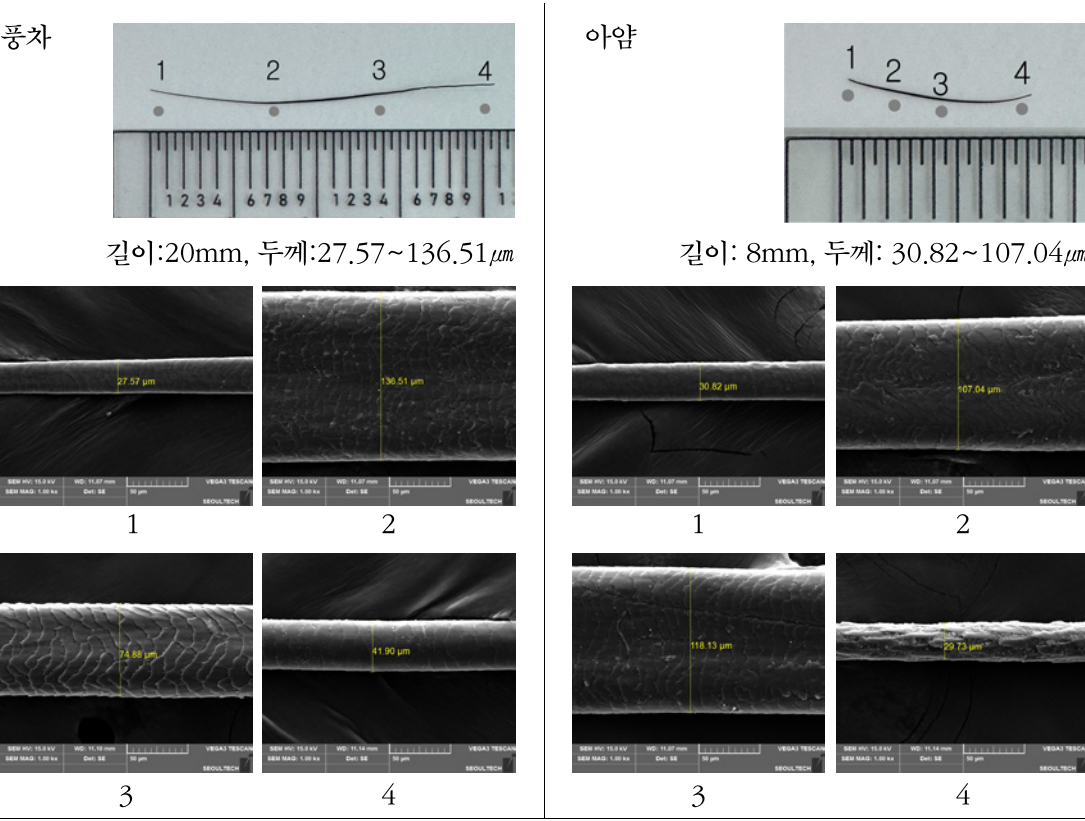


그림 10. 아얌과 풍차에 사용된 모피 SEM 측정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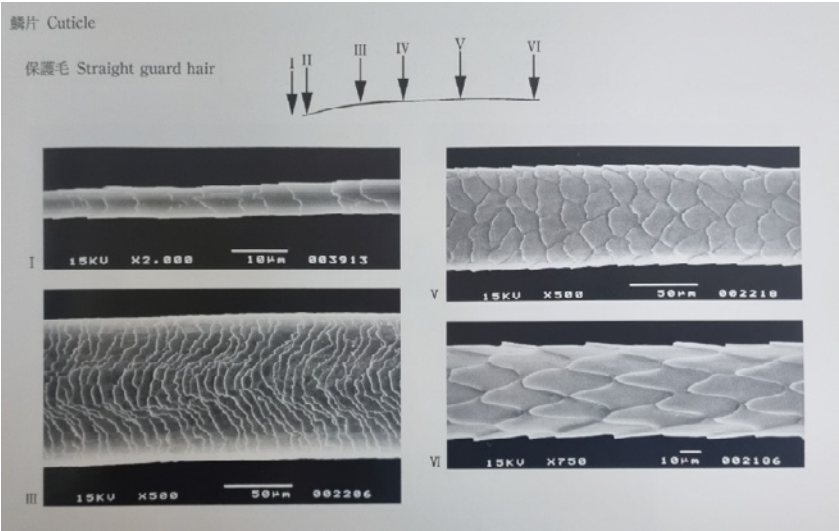


그림 11. Martes zibellina(Sable)의 SEM 이미지 (近藤敬治, 2013, p.69)

다. 갓두루마기(경운 11407)

여성용 갓두루마기(경운 11407)의 안감에서 시료를 채취하였다. 시료의 두께는 담비로 추정되는 모보다 2배 정도 얇은 모를 지녔지만, 길이와 두께는 청서 털(그림 8)과 유사했다. 近藤敬治의 청서(Sciurus vulgaris)의 SEM 이미지(그림 13)와 비교분석했을 때, 두께와 큐티클 형상에서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Sciurus vulgaris의 SEM 이미지는 가)갓두루마기(경운6801)의 모피 시료와 유사한 측면을 보였다. 따라서 갓두루마기(경운11407)는 동부회색청서, 갓두루마기(경운6801)는 유라시아붉은 청서로 모두 청서피로 안감을 대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갓두루마기 안감(청서피)

길이: 약 25mm, 두께: 16.22~62.98 μ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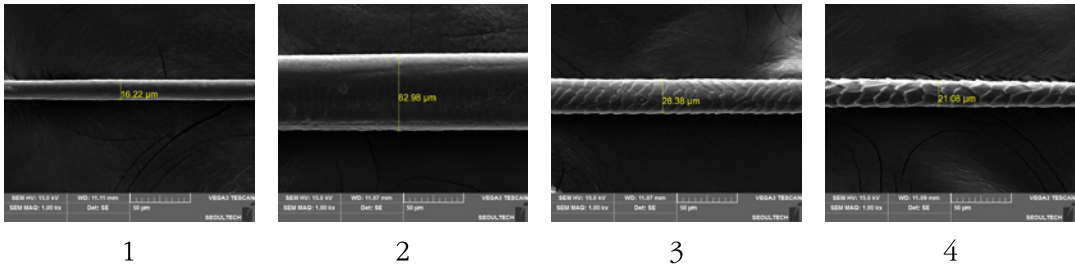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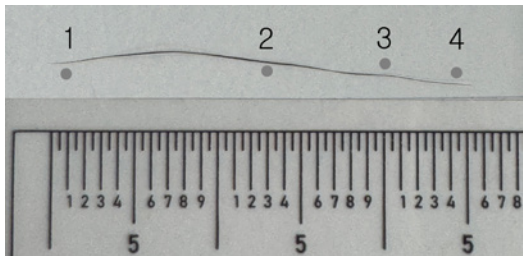


그림 12. 갓두루마기 안감털(청서피)에 사용된 모피 SEM 측정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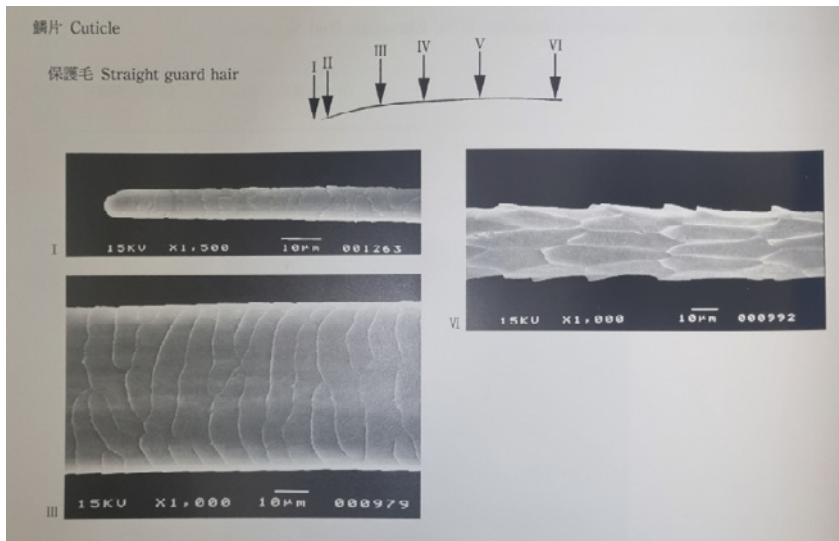


그림 13. Sciurus vulgaris의 SEM 이미지 (近藤敬治, 2013, p.136)

4. 전통 갓옷 제작 기법

특별전 <갓옷, 겨울을 건너다>에 전시된 경운박물관 소장 20세기 전반기의 갓옷을 통해 다양했던 전통 갓옷 제작법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국식 마괘와 비교를 통해 전통 갓저고리의 제작 기법이 중국의 제작 기법과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할 수 있다.

과거에는 털이 귀했기 때문에 비단 겉옷이 헤어져도 다시 다른 겉감을 만들어 입을 수 있도록 폴로 고정하여 두었다. 시간이 지나 겉감과 내피를 고정하던 풀칠이 떨어지면서 갓옷의 내부를 관찰할 수 있었다. 전통 갓저고리/두루마기/마고자 제작법은 비단과 모피를 배합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겉감 비단에 뿔뿔한 광목 심지를 배접하고 외곽선을 접어 형태를 만들고, 안감 털로 옷의 형태를 만들어 폴로 고정시키는 방식이다. 외곽선을 심지와 함께 접어 만들기 때문에 바느질의 공이 덜 드는 장점이 있다. 가장 쉽고 간편한 방식이다.

두 번째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외곽선을 접어 형태를 만든 후, 외곽선을 따라 선단을 4~7.5cm 정도 대어주는 방식이다. 이 때 선단의 색상은 같은 색상이거나 다른 색을 대어 멋을 낼 수도 있다.

세 번째는 겉감은 비단으로 안감은 광목을 사용하여 저고리를 완성한 후 털 내피를 안쪽에 대어주는 방식이다. 안감 털을 대기 전에 겹저고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공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고급 갓저고리 제작에 사용된다. 테모를 붙였을 때 깔끔하게 외곽선 라인이 정리되어 보인다. 털을 댄 상의는 두껍기 때문에 겉감 비단에 뒤틀림 줄기가 있더라도, 광목 심지에는 줄기를 넣지 않고 한 장으로 마름질하여 대어준다.



그림 14. 전통 갓옷 제작기법: 안단선 대기와 겹저고리 완성 후 털 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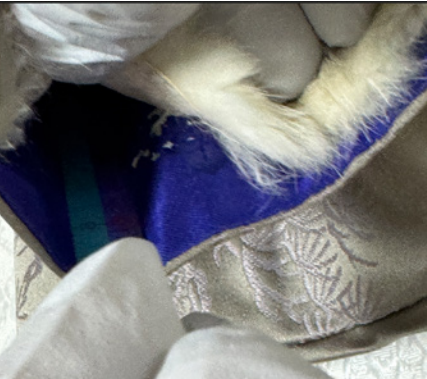
〈표 2〉는 중국식 마괘와 전통 갓저고리 제작 방법을 비교한 것이다. 마괘는 앞중심선에서 매듭단추로 여미는 형태의 상의로 앞여밈 부분에 덧단이 대어져 있다. 갓저고리(경운 3640)는 여성용 저고리로 우임으로 여며져 겹섶과 안섶의 크기가 다르며, 고름으로 여미는 형태이다. 마괘에는 차이나 칼라 형태의 칼라가 달린 반면, 저고리에는 우임형 직령이 달려있다.

이와 같은 구성의 차이로 인해 안감털 구성법에서 차이를 보인다. 마괘는 안감털의 경우 칼라의 털(담비로 추정)과 몸판 털(여우털)의 종류도 다르며 서로 연결되지 않아 움직임이 편하게 제작되어 있다. 반면, 갓저고리의 안감털은 깃 부분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안감털은 마괘의 경우, 바느질로 안감털과 비단으로 된 겹감을 드문드문 징그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갓저고리의 경우 풀을 사용하여 안감털과 비단 외피를 고정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심지의 경우 마괘는 양복에서 사용하는 문양 있는 부직포 심지로 보이는 심지를 사용한 반면, 갓저고리에는 광목에 뿔뿔하게 풀을 먹여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표 2. 중국식 마괘와 갓저고리 제작 방법 비교

	마괘(경운 11394)	갓저고리(경운 3640)
전체		

구성 및 안감털 제작 방법		
안감털과 겹감 부착 방법		
심지		

5. 나가며

본 연구에서는 사료에 기록된 갓옷용 모피류 검토, 경운박물관 소장 갓옷 유물의 모피 실측·빈도 분석, 현미경(SEM) 감별, 갓저고리의 봉제·구성을 관찰하여 전통 갓옷의 재료와 제작 기법을 실증적으로 정리하였다.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삼국~조선에 이르는 기록을 통해 담비(초·돈), 여우, 삿, 수달, 산·해달, 청서, 오소리, 산양, 토끼, 사슴, 호랑이, 표범, 곰, 개·고양이 등 매우 폭넓은 모피 사용이 확인된다. 초피·서피에 대한 신분별 금제, 외교·무역(특히 명대 사신과의 모피·비단 교환, 일본산 수달피 유입)과 왕의 하사 관행은 모피가 재화·위신재로 기능했음을 보여준다.

둘째, 경운박물관 소장 갓옷 유물을 분석한 결과, 토끼털과 양털이 사용 빈도에서 최다였으며, 토끼털은 여성용(배자·남바위·갓저고리/두루마기) 중심, 양털은 남성 갓두루마기·여성 배자/갓저고리 안감에 다수 쓰였다. 고급 재료로는 검은담비(초피/동피)가 아얌·풍차·남바위 등에, 여우는 중국식 마패 안감과 목도리에, 청서(회색다람쥐)는 여성 갓두루마기(약 87장 사용)와 술에 확인되었다. 테모는 토끼 2건을 제외하고 주로 물범/털물개 계열의 뽀뽀한 털이 쓰였다.

셋째, 자연 탈락 보호모를 채취하여 SEM 관찰(1.0kx)과 도감 대조, ISO 17751-2 준거 분석을 실시했다. 수달(*Lutra lutra*), 검은담비(*Martes zibellina*), 청서(*Sciurus vulgaris*)의 큐티클 패턴을 각각 확인하여 기증자 구술·형태 관찰을 과학적으로 검증했다. 일부 난모류는 전체적으로 짙은 흑색을 띠어 염색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넷째, 갓옷 제작에 있어 3가지 공법이 확인되었다. 겹감 비단에 광목 십지 배접 후 외곽선 접기, 털 내피를 풀로 고정하는 간편형, 안쪽에 선단(4~7.5cm)을 대어주는 장식·보강형, 겹저고리를 완성한 후 내피를 대는 고급형으로 구분되었다. 중국식 마패와 전통 갓저고리의 구성 및 제작에 있어 가장 큰 차이는 몸판에서 깃이 분리되어 있는가 연결되어 있는가하는 것이고, 전통 갓옷은 안감털이 몸판에서 안깃과 길깃까지 모두 연장되어 있는 형태였다.

2025년 경운박물관과 국립대구박물관 공동기획전 〈갓옷, 겨울을 건너다〉전시·소장품을 토대로 전통 갓옷의 재료 문화와 등급 체계, 성별·용도에 따른 재료 선택, 중국과의 기술적 차별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 SEM 기반 감별은 구술·형태 관찰을 보완하는 신뢰도 높은 판별법임을 확인하였다. 향후에는 큐티클 패턴 분석 뿐 아니라 메둘러(단층) 분석, 편광 현미경 분석까지 이루어져 더 확실한 감별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전통 갓옷은 방한을 넘어 신분·미감·교역이 교차하는 종합 문화유산이며, 한국 특유의 봉제·접착·마감 미의식이 중국 복식과 변별되는 고유한 체계를 이룬다. 본 연구는 문헌-유물-과학분석을 연결해 그 실체를 정립하고, 제작기법 표준 기록화와 재현·교육에 활용 가능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였다.

참고문헌

『관자』
『회남자』
『三國志』
『高麗史』
『조선왕조실록』
『淸江先生鯪鱗瑣語』

국사편찬위원회. “역사 속 외교 선물과 명품의 세계.” 서울: 두산동아, 2007.

안보연, 우리나라 모피와 피혁 복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오준석. “천연섬유와 모피 식별 아틀라스.”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2005.

MONAKHOV, Vladimir G. *Martes zibellina* ^(Carnivora: Mustelidae). *Mammalian Species*, 2011, 43.876: 75-86.

近藤敬治. “日本産哺乳動物毛図鑑: 走査電子顕微鏡で見る毛の形態.” 北海道大学出版会, 2013.

郭威, 清代宫廷貂皮的来源及用途(Sources and Use of Marten in the Qing Court), 故宫学刊(Journal of Gugong Studies),18, 2017. 225-233.

Textiles — Quantitative analysis of cashmere, wool, other specialty animal fibres and their blends Part 2: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method, https://www.iso.org/standard/83596.html

“一代昭度.” 一代昭度 - 澳门艺术博物馆, www.mam.gov.mo/gb/exhibition/2020_Stately_Demeanour_Costumes/105#gallery-1. Accessed 8 Sept. 2025.

“宫里有了它，过冬很安心！_腾讯新闻.”_腾讯新闻, 22 Dec. 2020, news.qq.com/rain/a/20201222A08Z7200.

01. 송시열 초구 宋時烈 貂裘 재현품

등길이 81 화장 92 품 55

제이원랩 제작



02. 방령포 方領袍 재현품

Square Collared Robe

등길이 143 화장 120

안인실 소장



03. 아얌 쓰고 갓두루마기 입은 여인

20세기 초

가로 9 세로 14

박상진 기증



04. 갓두루마기 周衣

Fur-lined Coat for Women

1960년대

등길이 128 화장 70.6 품 55

민병위 기증



05. 갓두루마기 周衣

Fur-lined Coat for Women

1950년대

등길이 111 화장 68 품 53

이춘방⁽⁵⁰⁾ 기증



06. 갓두루마기 周衣

Fur-lined Coat for Women

20세기 초

등길이 116 화장 70.5 품 53.5

이미영⁽⁵⁴⁾ 기증



07. 갓두루마기 周衣

Fur-lined Coat for Men

20세기 초

등길이 118 화장 69 품 57

박경숙⁽⁶⁵⁾ 기증



08. 마괘 馬褂

Outer Jacket

19세기 말~20세기 초

등길이 69 화장 79 품 55

이홍주 기증



09. 마고자 馬古子

Outer Jacket

1950~1960년대 추정

등길이 63 화장 78 품 63

이춘방⁽⁵⁰⁾ 기증



10. 마고자 馬古子

Outer Jacket

1940년대

등길이 53.5 화장 76 품 54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11. 갓저고리 襦

Fur-lined Jacket for Women

20세기 초

등길이 39 화장 74 품 60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12. 갓저고리 襦

Fur-lined Jacket for Women

1910년대

등길이 46 화장 76 품 56

고숙경⁽⁶¹⁾ 기증



13. 갓저고리 襦

Fur-lined Jacket for Women

1930~40년대

등길이 46 화장 72 품 53

이승리⁽⁵⁴⁾ 기증



14. 갓저고리 襦

Fur-lined Jacket for Women

1940~50년대

등길이 49 화장 77.5 품 55

최혜영⁽⁴⁴⁾ 기증



15. 갓저고리 襦

Fur-lined Jacket for Women

1950년대

등길이 50.5 화장 76 품 60

최혜영⁽⁶¹⁾ 기증



16. 갓저고리 襦

Fur-lined Jacket for Women

20세기

등길이 45 화장 77 품 57.5

김명혜 기증



17. 갓저고리 襦

Fur-lined Jacket for Women

1960년대

등길이 46 화장 75 품 57

최혜영⁽⁶¹⁾ 기증



18. 갓저고리 襦

Fur-lined Jacket for Women

19세기 말~20세기 초

등길이 50.5 화장 69.5 품 49.5

이효영⁽⁵⁶⁾ 기증



19. 갓저고리 襦

Fur-lined Jacket for Women

20세기 초

등길이 42 화장 65 품 47

경운박물관 소장



20. 갓저고리 襦

Fur-lined Jacket for Women

1940년대

등길이 40 화장 46 품 46

정광숙⁽⁵⁹⁾ 기증



21. 털배자 褙子

Fur-lined Vest for Men

조선 후기

길이 66 품 49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22. 털배자 褙子

Fur-lined Vest for Women

1950년대

길이 32.5 품 49

임영희⁽⁵¹⁾ 기증



23. 털배자 褙子

Fur-lined Vest for Women

1950년대

길이 37 품 45

윤난지⁽⁶⁰⁾ 기증



24. 털배자 褙子

Fur-lined Vest for Women

1928년

길이 39 품 48.5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25. 털배자 褙子

Fur-lined Vest for Women

20세기

길이 34 품 49

박경자⁽⁵⁰⁾ 기증



26. 털배자 褙子

Fur-lined Vest for Women

1940~50년대

길이 42.5 품 47

최미경⁽⁶³⁾ 기증



27. 털배자 褙子

Fur-lined Vest for Women

1930~40년대

길이 38 품 47.5

민용자⁽⁵¹⁾ 기증



28. 털배자 褙子

Fur-lined Vest for Women

20세기

길이 44 품 55

고숙경⁽⁶¹⁾ 기증



29. 털배자 褙子

Fur-lined Vest for Women

1930~40년대

길이 50 품 50

윤정임⁽⁴⁶⁾ 기증



30. 털배자 褙子

Fur-lined Vest for Women

1930~40년대

길이 41 품 45

이승리⁽⁵⁴⁾ 기증



31. 털배자 褙子

Fur-lined Vest for Women

1950년대

길이 43 품 49

류수인⁽³⁶⁾ 기증



32. 털배자 褙子

Fur-lined Vest for Women

20세기

길이 35 품 49

장희순⁽³⁸⁾ 기증



33. 털배자 褙子

Fur-lined Vest for Women

1950년대

길이 38 품 47.5

경운박물관 소장



34. 털배자 褙子

Fur-lined Vest for Women

1935년

길이 36.5 품 44

이덕희⁽⁴⁷⁾ 기증



35. 털배자 褙子

Fur-lined Vest for Women

20세기

길이 34 품 48.5

안소명 기증



36. 털배자 褙子

Fur-lined Vest for Women

1940년대

길이 33.5 폭 42.5

이금자⁽⁴⁷⁾ 기증



37. 털배자 褙子

Fur-lined Vest for Girl

1948년경

길이 23.5 폭 38

김희경 기증



38. 털배자 褙子

Fur-lined Vest for Girl

1950년대

길이 25.5 폭 36

경운박물관 소장



39. 털배자 褙子

Fur Vest for Women

1930년대

길이 53 폭 52

이선자 기증



40. 오향우 신부 상차림

1934년

가로 26.7 세로 21.2

심재환⁽⁴³⁾ 기증



41. 휘항 抑項

Winter Fur Hood

1800년대

길이 62.5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42. 풍차 風遮

Men's Winter Cap

20세기 초

길이 43.5 너비 27.5

전명애⁽⁵⁰⁾ 기증



43. 풍차 風遮

Women's Winter Cap

1940년대

길이 44 너비 26

김희경 기증



44. 남바위 南所爲

Men's Winter Cap

19세기 말~20세기 초

길이 48 너비 26

윤혜숙⁽⁵⁰⁾ 기증



45. 남바위 南所爲

Women's Winter Cap

19세기 말~20세기 초

길이 43 너비 24

성기희⁽²⁸⁾ 기증



46. 아얌 額掩

Women's Fur Cap

19세기 말~20세기 초

모부 길이 14 너비 28

드림 길이 89 너비 18

경운박물관 소장



47. 아얌 額掩

Women's Fur Cap

19세기 말~20세기 초

모부 길이 11 너비 28.5

드림 길이 128 너비 18.5

김원옥⁽⁶⁰⁾ 기증



48. 아얌 額掩

Women's Fur Cap

19세기 말~20세기 초

길이 12 너비 26

경운박물관 소장



49. 풍덩이 風遮 재현품

Winter Cap for Children

길이 43 너비 33

경운박물관 소장



50. 털토시 吐手

Wristlets

19세기 말~20세기 초

길이 34

김추봉⁽⁴⁾ 기증



51. 털토시 吐手

Wristlets

1940년대

길이 26

강경희⁽⁴⁹⁾ 기증



52. 털토시 吐手 재현품

Wristlets

길이 54.5

경운박물관 소장



53. 늑피혜 鹿皮鞋

Deerskin Shoes for Women

19세기 말

길이 26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소장



54. 태사혜 太史鞋

Leather Shoes for Children

19세기 말

길이 13.5 너비 4.5 높이 5.5

경운박물관 소장



55. 혜 鞋

Leather Shoes for Women

19세기 말~20세기 초

길이 25 너비 6.5

경운박물관 소장



56. 운혜 雲鞋

Leather Shoes for Women

20세기 초

길이 23.5 너비 5.5

조연자⁽⁵⁰⁾ 기증



57. 흑혜 黑鞋

Black Leather Shoes for Women

19세기 말~20세기 초

길이 24 너비 6.5

설갑원 기증



58. 당혜 唐鞋

Leather Shoes for Women

20세기

길이 25 높이 6.5

이정우⁽⁶³⁾ 기증



59. 유혜 油鞋

Rain Shoes for Men

19세기 말~20세기 초

길이 26 너비 9 높이 8.8

박경숙⁽⁶⁵⁾ 기증



60. 망토 外套

Cape

1900년대 초

등길이 114

이인숙⁽⁵⁵⁾ 기증



61. 가죽 옷

Leather Jacket

조선 후기

등길이 93 폭 57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62. 코트

Coat

20세기

등길이 122 화장 81 폭 44

이정우⁽⁶³⁾ 기증



63. 털배자 褙子

Fur-lined Vest for Girl

20세기

등길이 29 폭 38

이정우⁽⁶³⁾ 기증



64. 솔

Shawl

1950년대

길이 150 너비 19

백인향⁽⁵⁶⁾ 기증



65. 솔

Shawl

1958~1960년

길이 148 너비 27

박신희⁽⁴³⁾ 기증



66. 솔

Shawl

20세기

길이 140 너비 28

이영희⁽⁶⁰⁾ 기증



67. 여우 목도리

Fox Scarf

20세기

길이 101

한신자⁽⁴²⁾ 기증



68. 여우 목도리

Fox Scarf

20세기

길이 131 너비 18

장경수⁽⁵¹⁾ 기증



69. 핸드백

Handbag

20세기

김희경 · 김혜진⁽⁶¹⁾ · 변진 · 이혜원⁽⁶²⁾ · 전명애⁽⁵⁰⁾ 기증



70. 방한모 防寒帽

Winter Cap

1960년대

너비 25 높이 19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71. 중절모 中折帽

Fedora

1960년대

가로 30 세로 26.6 높이 16

설영자⁽⁵⁹⁾ 기증



72. 실크햇과 보관함

Silk Hat and Silk Hat Box

1960~70년대

가로 34 세로 27 높이 17.5

서진강⁽³⁶⁾ 기증



73. 가죽함 皮函

Leather Trunk

1900년대 초

가로 75 세로 47 높이 31.5

민은식⁽⁴⁹⁾ 기증



74. 갑주함 甲冑函

Storing Box for Armor and Helmet

1880~1890년대 추정

가로 42 세로 69 높이 16

박신희⁽⁴³⁾ 기증



75. 여행용 가방

Suitcase

1930년대

가로 77 세로 44.8 높이 22.5

천유경⁽⁵⁷⁾ 기증



갓옷, 겨울을 건너다

Embraced by Fur and Leather

발행일

2025년 9월 25일

디자인

닷츠

펴낸곳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ISBN

979-11-974654-7-5 93600